

# 융합경영리뷰

한 국 을 대 표 하 는 융 합 경 영 매 거 진

## 융합시대의 기업가정신



초연결(hyperconnectivity)과 초지능(superintelligence)을 특징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생활 속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기술혁신은 필연적으로 기업경영에도 역시 커다란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것입니다. 융합경영 리뷰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경영학과 이외 관련된 제 분야의 융복합 연구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경영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contents

### 에디터 컬럼

1 융합시대의 기업가정신

### 주제 컬럼

3 ChatGPT와의 융합시대, 기업가정신과 우리나라 산업에 대한 대담 \_ 박정완

8 기업가정신에 바치는 헌사(獻辭) \_ 황재일

### 디지털경영

12 ChatGPT 세상 \_ 이영기

### 휴먼경영

19 융합시대에 다양성 전문가들이 하는 말 \_ 이종구

21 자폐성장장애인의 바른 이해의 과정 \_ 강은희

### ESG경영

25 가열되는 오크(woke) 논쟁, ESG의 미래는? \_ 이종재

32 사회적 가치실현과 SDGs \_ 탁진규

### 경영에세이

36 길바닥 지혜를 찾아 떠난 세계일주 기행 \_ 이규형

융합경영 리뷰\_2023년 4월호(NO.46)

발행일 2023년 4월 1일

발행처 지식플랫폼

발행인 김주연

편집위원장 엄재근

편집 그린펠스

디자인 M.S.G.

주소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62 디큐브시티 15층 1512호

이메일 bookplatform@naver.com

팩스 02-6499-4370

광고 문의 '융합경영 리뷰'에 광고 게재를 원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융합경영 리뷰 편집위원장

bookplatform@naver.com / 010-6839-4970





## 융합시대의 기업가정신

최근 세계적으로 K-드라마, K-음악, K-음식 등 K 시리즈가 주목받고 있다. 오천 년 역사를 생각해 보면, 하나의 장르로서 인정받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K-기업가정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 간 경제성장을 언급할 때, 한국의 '한강의 기적'과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라인강의 기적은 이미 제1, 2차 세계대전에서 보여준 독일의 막강한 군사 기술력-탱크, 함대, 잠수함 등의 제작 능력 기반 위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한국은 근대화 시기에 일본의 통치하에서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였고, 6·25전쟁 이후 폐허 속에서 시작되었다. 기반 기술은 거의 없고 기껏해야 해외원조 기술에 의존하는 정도이었다. 이 가운데 이루어낸 한강의 기적은 한국의 기업가정신 말고는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

기업가정신에 대하여 사람들은 '기업인이 갖춰야 할 윤리적 경영활동 및 자세', 또는 '이윤의 사회환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또 어떤 이들은 기업가정신을 '산업조직을 창립하려는 의지와 실행', '무에서 유를 창조', '미래를 예측하는 통찰력', '위험 감수', '불확실성에의 도전',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신' 등이라고도 말한다. 이처럼 기업가정신은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윤리'나 '이윤'으로만 정의하는 것은 기업가정신의 핵심 본질을 간과하는 것이다. 기업가정신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다. 창조적인 것도 아니다. 실현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창조적 파괴의 경제학자 슘페터는 기업가는 창조적 파괴를 통하여 새로운 제품 발명, 새로운 생산방법 도입,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의 새로운 결합을 창출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기업가정신은 혁신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가의 재능 또는 역량이다.

인류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융합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융합이란, 기존의 분리되어 있던 여러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 Korean Association of Converging Business Review



것을 말한다. IT기술과 의료기술을 융합하여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동차와 IT기술을 융합하여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 것 등이 융합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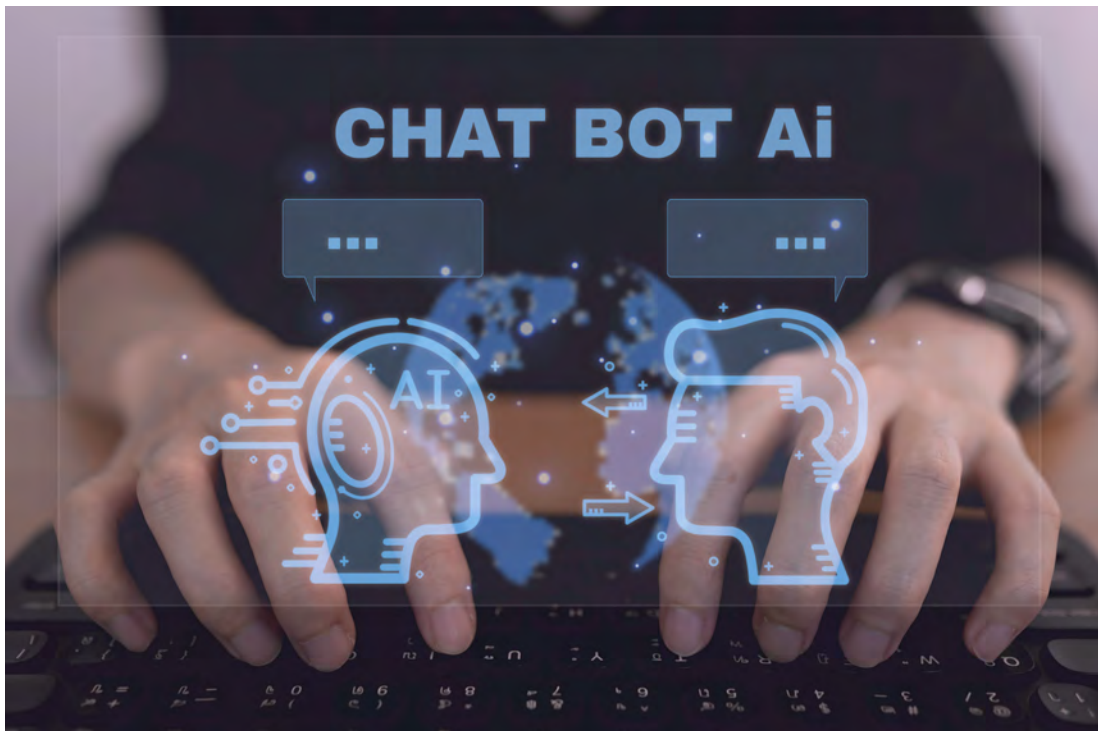
융합시대에는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이 융합되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가정신도 변화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회적 책임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필요하다. 현대 경영학의 대가인 피터 드러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기업가란 언제나 변화를 탐색하고, 그것에 대응하며 이러한 변화를 하나의 새로운 기회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며, 이것이야말로 기업가정신의 정의이다.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는 특유의 수단을 혁신이라고 한다.”

융합시대의 기업가정신을 무장한 인재들이 한국의 미래를 주도할 것이다. 새로이 오는 시대를 이끌어 갈 한국 기업가정신에 대해 설렘을 가져본다.

융합경영 리뷰 편집위원장

# ChatGPT와의 융합시대, 기업가정신과 우리나라 산업에 대한 대담

박정완



## 들어가며...

콘텐츠의 생성도 이제는 AI의 도움을 통해 만드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이번 기고문에서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ChatGPT와 함께 '융합시대의 기업가정신'에 대해 대담하는 형태로 칼럼의 내용을 구성해보았다. 본 기고문에 제시되는 내용 중 일

부는 ChatGPT가 학습한 방대한 양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학습된 알고리즘 내에서 내놓은 대답들이기에 일부 저작권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실험적인 관점에서의 시도이기에, 본 글을 보는 원작자들 또한 충분히 양해해줄 것이라 생각한다.

바로 본문부터 들어가서 지금부터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해보도록 하자. 본 기고에서 필자는 'Q'로

ChatGPT는 'A'로 표기하여 대담형식으로 진행됨을 미리 알린다.

## 융합시대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Q&A

Q. 당신이 생각하는 융합이 무엇인지 짧게 말해줄 수 있나요?

A. 융합은 두 가지 이상의 분야나 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와 창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다양한 분야와 기술을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융합의 근원적인 목적입니다.

Q. 동일한 맥락에서 기업가정신이란 무엇입니까?

A. 기업가정신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열정, 책임감, 도전적인 마인드셋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사회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와 행동입니다. 기업가정신은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는 것뿐 아니라,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나는 태도, 불확실한 환경에서도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 등을 포함합니다. 결국, 기업가정신은 새로운 가치창출과 사회발전을 위한 태도와 역량입니다.

Q.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융합이라는 단어와 가장 부합하는 회사는 어디인지 말해줄 수 있나요? 대표적으로 3~5개 기업들을 선정해서 그들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나요?

A. 네, 대표적인 기업들과 그들의 강점과 약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삼성전자

강점: 광범위한 제품 라인업과 기술력,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권을 유지하는 명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약점: 조직의 거대성으로 인한 의사결정 속도의 둔화, 중국시장에서의 경쟁력 부진

### 2) 현대자동차

강점: 차량 디자인과 품질, 친환경 자동차 분야에서의 선도적인 입지,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

약점: 전기차 시장 진입이 다소 늦은 편, 대체로 경쟁사들에 비해 브랜드 가치가 낮은 편

### 3) LG화학

강점: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의 선도적인 입지, 다양한 화학제품 라인업,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

약점: 폴리실리콘 사업 분야에서의 국내 경쟁사와의 경쟁력 부진, 수소 연료전지 시장에서의 경쟁력 부진

### 4) 카카오

강점: 모바일 메신저와 SNS 시장에서의 점유율, AI 기술의 선도적인 위치,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

약점: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의 국내 경쟁사와의 경쟁력 부진, 대체로 경쟁사들에 비해 브랜드 가치가 낮은 편

### 5) SK하이닉스

강점: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의 선도적인 입지,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 기술력

약점: 수요의 변동성에 민감한 산업, 대체로 경쟁사들에 비해 브랜드 가치가 낮은 편

Q. 제 생각에는 앞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전략적인 파트너십이 융합과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열쇠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전략적인 파트너십은 융합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원자재 공급업체나 유통업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끼리의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과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욱 다양한 기술과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앞에서 제시한 5개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 추천해줄 수 있는 기업들을 매칭시켜서 설명해주세요.

A. 앞서 언급한 5개 기업들과 매칭시켜볼 수 있는 기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삼성전자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과 매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카카오, LG CNS 등의 기업이 매칭 가능합니다.

#### 2) 현대자동차

자율주행, 전기차, 수소차 등 첨단 자동차 기술 관련 기업과 매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SK이노베이션, LG화학, POSCO ICT 등의 기업이 매칭 가능합니다.

#### 3) SK하이닉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과 매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카카오, SK C&C 등의 기업이 매칭 가능합니다.

#### 4) LG화학

전기차, 배터리, 화학소재 등 첨단기술 관련 기업과 매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SK이노베이션, POSCO ICT, 삼성SDI 등의 기업이 매칭 가능합니다.

#### 5) POSCO

철강, 자동화,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과 매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LS산전, SKC 솔믹스, 한화솔루션 등의 기업이 매칭 가능합니다.

Q.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융합과 기업가정신의 관점에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A. 저는 융합과 기업가정신이 현재의 급변하는 시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융합하여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이 필요합니다. 기업가정신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실행하는 역량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역량을 갖춘 기업은 혁신을 일으키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융합과 기업가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결론 및 의견

이번에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ChatGPT와 본 기고문 관련 주제에 대해 대답하며 느낀 점은, 인공지능의

수준이 기존에 알고 있던 정도를 크게 넘어선다는 것과, 답변이 어느 정도로 정확한지 파악해보지는 않았으나 내용만 봐서는 전혀 문제 삼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는 것이다.

앞으로 우려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과 이를 바탕으로 입게 될 피해의 정도가 가늠되지 않는다. 우선 먼저 떠오르는 것은 거짓 정보의 확산에 따라 정치, 경제적 이슈들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악의적으로 퍼뜨린 정보가 실제로 활용되며 무엇이 거짓이고 진실인지 구분할 수 없는 정도의 현실이 곧 다가올 것처럼 보인다. 이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보보안이나 이상징후에 대한 포착, 정보에 대한 진실검증 등의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마치 화이트 해커와 같은 형태로 등장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 더욱 전도유명한 분야로 부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박정완**

현) DAMA Korea 이사  
전) 이니텍(KT그룹) 금융전략팀  
넥스스앤코드 전략컨설팅, STX조선해양 사업기획팀  
한양대학교 경영컨설팅 박사 / Helsinki University MBA  
저서: 『우리는 즐거운 퇴사 인간입니다』, 『Premium 브랜드 마케팅』  
『컨설턴트가 바라본 경험과 미래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일상적 접근』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종이거나 가장  
똑똑한 종들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들이다.”  
-찰스 다윈-



지속가능한 경영을 이루기 위해 빠르게 변화가는 지금의 사회 속에서 오늘의 경영을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CEO와 리더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디지털이라는 단어 자체를 품고 자라온 세대들이 하나, 둘 회사에서 머리 수를 채워 나갈수록 기업의 문화와 산업의 생태계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굴러가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조직이 생존하는 노하우를 배워야 합니다.





DAMA International Local Chapter  
데이터 매니지먼트 코리아

# DAMA KOREA CHAPTER

The Data Management Association (DAMA), DAMA Korea is a not-for-profit, vendor-independent, global association of technical and business professionals dedicated to advancing the concepts and practices of information and data management.



## The Global Data Management Community

## DAMA International Active Chapter 56 | Forming Chapter 7

### Canada

DAMA Calgary  
DAMA Edmonton  
DAMA Montréal  
DAMA Vancouver BC  
IRMAC

### US

DAMA Central Ohio  
DAMA Central Virginia  
DAMA Chicago  
DAMA Georgia  
DAMA Houston  
DAMA Indiana  
DAMA Iowa  
DAMA Kansas City  
DAMA Midsouth  
DAMA Minnesota  
DAMA National Capital Region  
DAMA New England  
DAMA New York Capital Region  
DAMA New York City  
DAMA Philadelphia  
DAMA Phoenix  
DAMA Portland  
DAMA Puget Sound  
DAMA Rocky Mountain  
DAMA Southwest Ohio  
DAMA Wisconsin

### Netherlands

DAMA Netherlands

### France

DAMA France

### Belgium

DAMA BeLux

### Switzerland

DAMA DACH

### UK

DAMA United Kingdom

### Denmark

DAMA Denmark

### Germany

DAMA Germany

### Finland

DAMA Finland

### Italy

DAMA Italy

### China

DAMA Beijing  
DAMA China - located in Hong Kong  
DAMA Shanghai

### Korea

DAMA Korea

### Japan

DAMA Japan

### Thailand

DAMA Thailand  
Bangkok

### Australia

DAMA Australia

DAMA International - Data Management Body of Knowledge (the DMBok)  
Certified Data Management Professional - CDMP™ certification

## Purpose DAMA KOREA

DAMA Korea's primary purpose is to promote the understanding, development and practice of managing data and information as key enterprise assets to support the organization.

## Contact Us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6 상재리제센터 A동 1604호 DAMA Korea  
<https://dama-korea.org> | 02-562-0763 | [president@damakorea.org](mailto:president@damakorea.org)



# 기업가정신에 바치는 헌사(獻辭)

황재일

##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의 아름다움

이번 달의 화두는 '기업가정신'이란 단어. 영어 단어로는 entrepreneurship이라 쓰고, 발음은 '앙터프루너십' 정도가 된다. 처음 이 단어를 접할 때 발음이 특이해서 쉽게 기억에 남겠다고, 재미있어한 기억도 있다. 불어에서 유래된 단어일 것이다. 요즘 '앙버터'란 접두사가 들어간 간식들이 유행인 모양인데, 그럴 때마다 나는 이 '앙터프루너십'을 떠올리곤 한다.

본론으로 들어가보자. 기업가정신이란 용어가 내포하는 특질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나에게 가장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은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정신'이다. 봉급쟁이가 되는 것과 기업가가 되는 것 사이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아주 쉽게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달 칼럼에서 밝힌 바 있지만, 나는 2000년을 기준으로 그 전 17년은 봉급쟁이로 살았고, 그 후 17년간은 나를 '기업가'로 살았다. 정말이지 그 후반 17년간은 끝없는 불확실성과의 씨름으로 점철된 인생이었다. 더군다나 그 17년 중 마지막 몇 년간 나의 천직이라 여겼던 '기업교육' 사업에 대한 경쟁력이 급격하게 저하되면서 생존을 위한 대안으로 뛰어들었던 것이, 요즘 젊은이들이 하나같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금융 트레이더'의 길이었다. 이 생존방식은 그야말로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이란 의미에서는 끝판왕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결국 나는 지난 2021년에 7년 정도 겪었던 나의 '금융 트레이더'로서의 치열한 경험들을 일기 형식으로 써놓았던 글들을 모아서 이북(eBook)으로 출간하기도 했다.<sup>1</sup> 혹시 이 책을 접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그 책에서 인용했던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멋진 인용문들을 여기 소개해볼까 한다. 기업가정신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이라면, 이 인용문들을 읽는 것이 힐링을 받거나 영감을 불러일으킬 기회가 되리라고 기대해본다.

우선 나의 인생 책 중 하나인 코엘료의 『연금술사』에 나오는 명구 두 개를 소개한다.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도전은 언제나 ‘초심자의 행운’으로 시작되고, 반드시 ‘가혹한 시험’으로 끝을 맺는 것이네.”

“만일 그대가 찾는 것이 순수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것은 결코 썩지 않고 영원할 것이네. 그리고 그대는 언제나 되돌아갈 수 있지만, 그대가 본 것이 별의 폭발과 같이 일순간의 섬광에 지나지 않는다면, 돌아가도 빈손일 수밖에 없어. 하지만 그대는 폭발하는 빛을 본 것이니, 그것만으로도 고된 삶을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게지.”

1 [eBook] 바보 연금술사의 투자 성공기 1/2, 황재일, 지식플랫폼, 2021년 10월 21일

저 두 번째 인용문은 스티브 잡스가 사무실 벽에 붙여놓았다던 “과정이 곧 보상이다.”란 말로 축약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은 우리 삶에 있어서 피해 갈 수 없는 숙명에 가까운 것임을 상기시켜주는 인용문도 있다.

“영국의 철학자 앨런 와츠가 말했듯, 순간성과 유동성 자체가 본질인 세계에서 완벽하게 안정되기를 원하는 것은 모순이다. 또는 수학자 존 앨런 폴리스가 지적했듯이 불확실성이야말로 실제하는 유일한 확실성이고 불안정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아는 것이 유일한 안정이다.”<sup>2</sup>

##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는 인용문들

다시 앞에서 소개한 내 책 속에 실린 인용문을 몇 개 더 발췌하려 한다. 이번엔 내가 한동안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무너지고 좌절하여 극단적 선택의 충동까지 느끼던 무렵에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책 속의 명구들이다. 우선 나의 그 무렵의 상태를 짧은 한 문장으로 표현해준 인용문부터 소개한다. 때로는 이런 적나라한 외침들이 우리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하기도 하지 않던가!

“아무래도 좇됐다. 그것이 내가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론이다. 나는 좇됐다.”

『마션』의 첫 구절이다. 영화 말고 원작 소설의 첫 구절... 저런 외침이 찢어지고 너털너털해진 심장에서 절로 터져 나오던 무렵 나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책 한 권을 구해서 탐닉했는데, 그 속에 나오는 아래 인용문이 내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 책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였다.

“내 심장은 가슴 속에서 뛰고 있었다. 내 생애 그 같은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었다. 예사 기쁨이 아닌, 숭고하면서도 이상야릇한, 설명할 수 없는 즐거움 같은 것이었다. 설명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과 극을 이루는 그런 것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돈, 사람, 고사선, 수레를 모두 잃었다. 캉그리 날아가 버린 것이었다.

그렇다. 내가 뜻밖의 해방감을 맛본 것은 정확하게 모든 것이 끝난 순간이었다. 엄청나게 복잡한 필연의 미궁에 들어 있다가 자유가 구석에서 놓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다. 나는 자유의 여신과 함께 놀았다. 모든 것이 어긋났을 때, 자신의 영혼을 시험해보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보이지 않는 강력한 적(혹자는 하느님이라 부르고 혹자는 악마라 부르는)이 우리를 쳐부수려고 달려오는 것 같았다. 그러나 우리는 부서지지 않았다.

외부적으로는 참패를 당했으면서도 속으로는 정복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인간은 더할 나위 없는 긍지와 환희를 느끼는 법이다. 외부적인 파멸은 지고의 행복으로 바뀌는 것이었다.

나는 언젠가 조르바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어느 날 밤, 굉장한 강풍이 불었지요. 내가 자고 있는 오두막을 뒤흔들며 뒤집어엎으려 합니다. 나는 진작 이걸 비끄러매고 필요한 곳은 보강해 두었지요. 나는 불가에 홀로 앉아 웃으면서 바람에게 약을 올렸지요. 이것 보게, 아무리 그래 봐야 우리 오두막에는 들어올 수 없어.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니까. 내 불을 끌 수도 없겠어. 내 오두막을 엮어? 그렇게는 안 되네.’

조르바의 이 몇 마디 안 되는 말에서 나는 인간이 취해야 할 도리와 강력하면서도 맹목적인 필연에 부딪

2 『트랜센드』, 스킷 배리 카우프만, 책세상, 2021년 09월 06일

뒤늦은 나이에 인생의 역전을 꿈꾸며  
금융 트레이딩에 뛰어든  
아마추어 FX 트레이더의 7년간의 기록!

황재일 박사의 「바보 연금술사의 투자 성공기」 이북 출시

‘바보 연금술사’라는 별명을 가진 저자가  
롤러코스터와 같은 금융시장에서  
험난한 모험을 통해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자신만의 성배!

바보 연금술사의 투자성공기  
그 이야기속으로 초대합니다!



했을 때 우리가 맞서 대적할 어조를 감득했다. 나는 해  
변을 따라 쟁쟁음으로 걸으며 내 적과 이야기를 나누  
었다. 나는 호령했다. ‘내 영혼에는 들어오지 못해. 문  
을 열어주지 않을 거니까. 내 불을 끌 수도 없어. 나를  
뒤엎는다니, 어림없는 수작!’

혹시 그대가 야심 찬 기업가정신으로 도전의 길에  
나섰다가 지금 처절한 실패를 겪고 있는가? 그래서 배  
우자나 혹은 다른 가족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경  
에 이르렀는가? 나도 그랬다. 그때 저 『그리스인 조르  
바』 책 속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발견하고, 이를 가  
족들에게 들려주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말썽이 생기는 건 질색이에요!” 내가 짜증으로

응수했다.

(중략)

“말썽이 질색이라고?” 조르바가 어이없다는 듯이  
소리쳤다.

“...어디 좀 들어 봅시다. 두목이 원하는 건 도대  
체 뭔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산다는 게 곧 말썽이오.” 내가 대꾸하지 않자  
조르바가 계속했다.

“죽으면 말썽이 없지. 산다는 것은... 두목, 당신,  
산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오? 허리띠 풀고  
말썽거리를 만드는 게 바로 삶이요!”

## AI와 기업가정신

기왕에 인용문 소개하는 칼럼으로 흘렀으니 요즘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는 OpenAI의 ChatGPT가 제시하는 인용문도 몇 개 소개할까 한다. 나는 질문을 구글 번역기로 영역을 한 뒤 영문으로 묻는다. 그리고 나온 답을 다시 구글 번역기에 돌리면 아주 쉽게 다음과 같이 우리말로 된 답을 얻게 된다. “기업가정신을 고양하는 좋은 인용문 몇 개만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순식간에 10개를 보여주었다. 그중 제법 괜찮은 인용문 몇 개만 ‘내가’ 다시 골라보았다.

“기업가로서 성공하려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실패할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실패가 보장되는 유일한 전략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 피터 드러커, 경영 컨설턴트 및 저자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려면 훈련과 규율,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에 겁먹지 않는다면 기회는 오늘날에도 그 어느 때보다 큼니다.” - 데이비드 록펠러, 미국 은행가이자 박애주의자

AI 얘기가 결국 또 나왔는데, 정녕 AI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우리 삶 곳곳으로 스며들고 있다. 오늘의 키워드인 기업가정신과 AI를 연결시켜 고려해볼 만한 관심거리를 두 가지만 더 언급하고 칼럼을 마무리하기로 하자.

우선 하나는, 저 ChatGPT를 선보인 OpenAI의 CEO조차 언급한 대로 사실 우리 인류는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 칼럼에서는 기업가정신의 핵심이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우리 인류가 AI의 압도적 범람이라는 불확실성을 맞닥뜨리고 있음에도 주목해야 하겠다. 아마도 ChatGPT와 같은 대화형 AI가 범람하는 만큼 그 부작용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가들도 속속 등장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마지막 하나가 더 흥미를 끈다. 최근 유튜브에 올라오는 아래와 같은 영상들을 보라.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하여 불확실성에 도전하려는 그대에게 놀라운 도구가 혜성처럼 나타난 것일 수도 있겠다. 희망을 품고 눈을 크게 뜨고 도전하기를 응원한다”



**황재일** 경영학박사  
 현) 유튜버, 컬럼니스트  
 현) (주)나도주게 경영고문  
 전) 엘살바도르 교육부 자문관  
 (정보통신산업진흥회/NIPA 파견)  
 전) 성신여대/aSSIST 겸임교수  
 전) 베스트러닝 대표  
 전) 한국IBM 컨설팅 전문위원

# ChatGPT 세상

이영기

미국 OpenAI사가 내놓은, 인공지능 기반의 대화형 정보검색 프로그램인 ChatGPT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연일 놀라운 활용 기능들이 소개되면서 바야흐로 인공지능 시대가 눈앞에 도래한 듯한 착각마저 들게 만든다.

ChatGPT를 활용하여 그 어렵다는 미국 변호사 시험을 통과했다느니, ChatGPT로 작성한 대학 과제를물 을 걸러내는 데 애를 먹는다는느니, 부작용도 심심치 않게 거론되기 시작한다. 이제는 관련 앱을 사용해서 그림도 그려주고, 오케스트라 악기별로 화음을 맞춰 작 곡한 곡이 인간의 것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연 일 인터넷을 달군다.



에드몽 드 벨라미(출처: <https://obvious-art.com>)

한편에서는 프랑스 예술품 업체 ‘오비어스 아트’가 내놓은, 인공지능이 그린 초상화가 43만 2,000달러 (한화 약 6억 원)에 팔렸다고 한다. 이런 세상이니 AI 자동화는 인간의 보조재에서 대체재로 전환되고 있다는 불안감도 생긴다.

그동안 필요한 정보를 손안에서 손쉽게 찾아주며 검색시장 점유율 92.48%(2022년 6월 기준)로 독점하 다시피 했던 구글은 비상이 걸려, 대표가 설립자까지 불러 도움을 요청하는 등 밤잠을 설친다고 한다. 실제로 구글의 후속 작품들은 대중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주가는 흔들리고 있다.

차고에서 시작해 컴퓨팅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였던 MS는 그동안 검색시장 3%(2022년 6월 기준) 점유라는 초라한 실적으로 맥도 못 추다가 OpenAI를 끌어들이면서 Bing, Office 등에 연이어 ChatGPT 기능을 탑재하고 본격적인 시장 장악에 나설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제 ChatGPT는 시대의 흐름이자 대세로, 국내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KT 등 관련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치고 워밍업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어라는 특수(?) 환경의 이점을 살려 국내시장 장악부터 나서고 세계시장을 향한 출사표를 준비 중이다.

한국은 분명 한국어에 한국적 문화감성이 어우러진 독특한 시장이다. 모든 정부 공문서며 행정체계가 ‘한글’이라는 특수한 프로그램 생태계를 구성하면서 특화되어 있고, 이는 외부에서 보면 자칫 고립의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이미 전 세계 인구 80억 명 중 페이스북 사용자가 30억 명을 돌파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페이스북의 사용자는 1,000만 명(2022년 기준)으로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국민 SNS인 카카오톡은 전 국민의 91%가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꼭 페이스북을 사용해야만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스스로 카톡에 묶여 고립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넓은 시야를 갖고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 물론 '카톡'이나 '한글'이 전 세계적인 한류문화(K-Culture) 영향을 따라 국제적으로 확산된다면 또 다른 생태계가 되겠지만 아직은 요원해 보인다.

ChatGPT가 출시 두 달 만에 월간 이용자 1억 명을 넘어섰다는 것은 분명 놀라운 현상이다. 그만큼 ChatGPT의 매력이나 강점이 사용자들에게 높은 기대감을 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굳이 기대감이라고 제한적으로 명시한 이유는 ChatGPT의 한계가 점차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 옛날에는 이랬는데...

인류는 과거 수천 년 동안 역사를 이루면서 다양한 문화와 제도를 만들어냈다. 원시 농경사회, 봉건주의적 영농사회, 근세 산업사회 등 다양한 제도와 문화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되었다. 이들 사회별로 핵심가치는 여럿이 있겠지만 그중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즉 정보를 가진 자가 그 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십을 갖추었다. 원시 농경사회의 족장이 그러했고, 봉건영주가 계층사회의 정점을 이루었으며, 산업혁명 이후에는 산업자본가가 그 역할을 맡았다. 봉건영주는 기사들과 특별한 관계 시스템을 구성하고 제한적 정보를 활용해서 세금과 부역으로 부를 축적하였다면, 산업자본가는 지역 간 물류 편차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여 기차운송이나 무역으로 돈을 벌었다.

산업혁명 이후 근대사회가 형성되면서도 여전히 정보는 교육훈련 제도를 통해 전수되고 유지되어왔다. 당연히 지식이 많은 교사와 경험이 많은 마스터는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지식은 교육생 중심으로 전수되었다. 이러한 지식을 제도권 밖에서 얻기 위해서는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자기 지식으로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탐험가들 중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바스코 다 가마가 동방항로를 개척하며 대항해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이러한 탐험가나 과학 연구자들은 극소수여서 사회 전반적인 지식습득은 여전히 교육제도를 통해 보편적으로 학문이라는 틀 속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었다.

주로 필사본에 의지한 지식전수 방법은 시간, 공간의 한계로 매우 지엽적이며 제한적으로 전파되어왔다. 먼 곳으로 일생의 스승을 찾아 유학을 떠나기도 하고, 재야 고수를 만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는 일들은 소설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그러던 지식전수는 인쇄가 발달하면서 혁명기를 맞게 되었다. 우리나라 통일신라시대의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을 필두로, 목판인쇄 출판이 시행되었고,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로 출판된 『직지심체요절』을 펴내면서 지식전수가 대중화되었다. 서양에서는 구텐베르그의 활자인쇄로 책이라는 인쇄

매체를 통한 지식전수가 용이해지면서 지식은 빠르게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다.

문서매체인 책의 위력은 당시로서는 놀라울 정도여서, 일부 권력자들은 책보급을 통제하고 심지어 책을 불살라버리면서 인류문화의 흐름을 뒤집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책을 통한 강연과 교육은 인간에게 중요한 과정으로 존중되고 확대·발달하면서, 인류에게 소중한 지적 자산과 역량을 강화시켜 주었다.

## 오늘날 정보화의 흐름

그러던 정보의 흐름이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활자매체에서 전자정보매체로 대전환을 이루게 되었다. 모든 정보가 '0'과 '1'이라는 단순 명확한 기호로 분류·정리되면서, 정보의 활용은 다양한 분석과 공유로 새로운 발달 국면을 맞게 되었다. 더구나 빛의 속도로 분석하고 정리하는 놀라운 기능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식정보 활용의 장을 대폭 확대하여 주었다.

여기에 인터넷은 정보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였고, World Wide Web 기술은 날개를 달아주었다. 모든 정보가 인터넷이라는 무한대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확산되고, 언제든 어디서든 정보에 접속가능하게 되면서 인류는 비로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 들어섰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이제 책상 밑에 자리하던 컴퓨터를 손안에 올려놓고 누구나 들고 다니며 정보를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이제 전세계에 보급된 모바일 기기는 지구상 10세 이상 인구의 75%(2022년 11월 기준)가 갖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누구나 손안에서 정보를 찾고 소통하며 분석·활용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정보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남들과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 교사도 강단에서 지식을 이야

기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휴대폰으로 검색해서 진위 여부와 또 다른 인사이트를 찾아낸다. 강의평점은 지식수준이 아니라 외모와 매너에 더 영향을 받을지도 모른다. 많은 학습교사들이 달달한 먹거리로 수강생들을 잡는 이유가 된다.

정보독점의 경계가 무너지자, 권력자들은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응원군을 많이 모아야 정책집행이 가능해졌다. 일견 진보된 민주주의로 보이지만, 응원군의 성격이나 사회적 정의와 부딪히는 경우가 생기면서 여론이 시끄러워지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이제 지하철이든 카페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바일 기기로 정보를 이용하면서 거의 24시간 정보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보는 단순한 팩트도 있지만 의도적인 가공정보도 있다.

예전에는 사회적 어른이 제시한 정보는 무게감을 더하고 여론의 방향타가 되었지만, 이제는 정보공유의 시대라 그런 영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누구나 정보를 공유하면서 사회적 어른의 실종 시대가 되었고 본다. 오히려 아무 이야기나 재미있게 말초적 쾌락만 자극하는, 단초적이고 무책임한 내용들은 제목만으로도 인기를 얻고 마치 사회의 중요한 여론인 양 행세하게 되었다. 이것을 먼저 재미있게 퍼뜨리는 사람에게 별점에 '좋아요' 구독이 몰리면서 큰 돈의 광고가 따라다닌다. 자연히 더 쾌락적으로, 사실 확인 없이 그저 흥미 위주의 짜깁기식 정보들이 인터넷에 넘쳐나면서 혼탁양상은 심각한 수준이 되고 말았다.

인간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좋은 일을 시도하면 좋은 방향으로 확산되어야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이는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 어쩌면 인간사회의 모든 일들도 물리학의 엔트로피 법칙을 따라가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즉 자연계는 무질서를 확대하는 쪽으로만 진화한다는 엔트로피 법칙은, 인간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불편한 양극을 자아낸다.

지식정보화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수없이 양산되는



쓰레기성 정보들은 빛의 속도로 순식간에 범지구적으로 퍼지면서 오염과 폐해를 생산하고 있다.

##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

구글이 탁월한 검색기능으로 검색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한 지 10여 년이 흘렀다. 무엇이든 구글 창에 단어만 입력하면 바로 찾아준다. 그것도 전세계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정보를 모아서 나열해준다. 어떤 것은 워드 파일로, 어떤 자료는 PDF파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올려준다. 각종 신문잡지 기사며 학술 발표, 개인 블로그까지 살살이 뒤져서 찾아낸 결과들이니 놀라울 수밖에 없다.

다만 문제가 하나 있다. 자료가 너무 많아 어느 자료를 봐야 할지 고민이 된다. 지금 당장 구글 창에 'ChatGPT'라고 쳐보자. 적어도 6.8억 개 이상의 수많은 자료가 올라올 것이다. 'chat GPT'로 한 글자 띄고 치면, 역시 1억 개가 넘게 올라온다. 여기에 한글까지 가세하면 대략 8억 개가 넘는 자료가 검색된다. 그중 자신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정보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8억 개를 일일이 열어보는 막노동을 과감히 시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8억 개를 몽땅 다 뒤져서 자료를 찾는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자료들을 다시 일일이 열어서 내용을 들여다보아야 하니, 불편하기도 하고 시간과 노력이 피가 난다. 그래도 달리 대안이 없으니 그저 눈에 쉽게 띄는 자료들부터 우선적으로 골라보게 된다. 검색창 위치가 중요해지는 이유이다. 더불어 위치 선정권을 쥐고 구글이 절대강자로 군림하게 되는 배경이다. 내 자료가 남들보다 더 많이 검색되도록 하려면, 방법은 하나다. 구글에게 눈에 잘 띄도록 검색순위 상단에 올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누구나 뒷자리를 노리니 자연 눈에 잘 띄는 자릿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 오늘날 구글의 수익원이 바로

이 광고에 기인하니, 검색의 유용함을 돈으로 사야만 하는 현실이 씁쓸해진다.

그러던 차에 나온 것이 바로 대화형 ChatGPT다. 인공지능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정보를 찾아주지만, 주문자와 대화하면서 원하는 취향과 내용대로 자료를 찾아 정리해준다. 원하는 대로 자료를 찾아주고 정리해주는 것이 핵심기능이다.

정리해주는 기능이 진화해서 글자를 그림이나 이미지로 또는 소리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 정리하는 방법도 문서나 파워포인트, 엑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리해준다. 이제는 누구나 언제라도 대화가 가능한 똑똑한 개인비서를 곁에 두게 되니, 누구나 좋아할 만하다. 더구나 모바일 기기 특성상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24h/7day 무제한 서비스가 가능하니 선풍적인 인기를 끌 만하다. 자연 구글에 안주하였던 구독자들이 때로 몰려 나가기 시작하니 구글 CEO가 밤잠을 설칠 만하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유능한 개인비서를 곁에 두게 되었으니 인류는 또 다른 발달을 이루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게 된다.

마치 2,000년 전 시골 농사꾼이던 유비가 제갈공명이라는 걸출한 ChatGPT를 얻고 촉나라를 세워 황제가 되었듯, 누구나 정보를 잘 활용하면 돈도 벌고 권력도 잡을 수 있을 듯한 기대가 생긴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괴리감이 크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당연히 짙어진다.

인공지능의 현실적 한계가 이제 더 가깝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ChatGPT 비서가 아무리 똑똑해도 정보의 출처는 우리가 만들어낸 각종 정보를 활용하고 정리한 것이다. 그저 기준에 널려 있는 정보들을 정리해주는 기능에 불과하다. 물론 그 정보 중에는 놀라운 가치를 지닌 정보도 있지만, 유명무실을 넘어 쓰레기 같은 정보도 수두룩하다. 심지어 어느 개인이나 집단의 편향된 의도로 조작된 정보도 많아, 정보의 질적 관리가 중요해

진다.

이러한 질적 관리는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힌다. 질적 판단의 기준이 개인, 집단, 사회공공 질서 등에 따라 판단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바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막다른 골목 같은 질문에 봉착하기도 한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ChatGPT로 운행하는데, 전방 왼쪽에는 할머니가 손주 유모차를 간신히 끌고 있고 오른쪽에는 유치원 아동들이 줄 맞춰 이동 중이다. 이때, 갑자기 전방에서 고장 난 차가 들이닥친다면 어떤 결정을 하여야 할까? 양적 판단인가? 질적 기준인가? 개인 우선인가? 집단 우선인가? 수많은 갈등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도처에 있을 수 있다. 또, 질문자의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답안이 나올 수 있고, 개인화에 따른 공공의 가치 기준과의 괴리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현재의 인터넷 공간에 가득한 불필요한 정보, 가짜 정보나 왜곡된 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골라낼지가 시급한 문제이다.

## ChatGPT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

이제 ChatGPT는 대세이자 우리 생활의 필수요소로 다가왔다.

어느 모임에서 박영숙 UN미래포럼 대표가 짙막하게 소개한 관련 앱들만 보아도 얼마나 효용이 높고 도움이 되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Dall-E2로 글씨를 쓰면 그림을 대신 그려준다.  
Midjourney를 쓰면 글을 그림으로 바꾸어 상상력을 확장시킨다.  
Playgroundai.com에서 무료로 사진형태를 바꾸고 그림도 그려준다.  
Leonardo.ai는 자신을 모델로 게임 아이템을 만들

고,

Lecica를 쓰면 그림 검색과 필요한 이미지를 그려준다.

Astria는 사진을 넣으면 자동차나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하고,

Hatchful은 무료로 로고를 만들고,

Soundraw는 음악이나 노래를 만든다.

Pictory는 역시 무료로 비디오를 만들고,

Runway는 차세대 콘텐츠 제작 도구로 좋다.

Tome.app은 스토리텔링 작업에 사진을 넣어 PPT 발표자료를 만든다.

Jasper.ai는 SNS에 광고 홍보하는 데 유용하며,

LUMA AI는 여러 장 사진을 올리면 3D로 만든다.

Durable.Co는 30초 만에 홈페이지를 만들고,

Real Future는 SNS 홍보 서비스 방법을 알려준다.

ElevenLabs는 목소리를 복제하여 인공지능으로 재생해준다. 고인의 생전 목소리로 대화가 가능하다고 하니 놀라지 마시라.



Dall.E2로 생성된 이미지

이 모든 것들은 일견 편리하고 유용해 보이지만 여전히 사용목적에 따른 윤리적 갈등은 남는다. 명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필요할 때 제대로 잘 써야 하는, 사용자의 인성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다. 여기에 상업적 목적에 따라 광고성 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따라붙게 되면서 내로남불식 혼탁한 남용이 우려된다.

정보의 축이 공공집단이나 사회적 리더에서 개인으로 하향 대중화되면서 빚어지는 과정이지만, 마땅한 대안이 쉽지 않다.

이는 마치 산업이 발달하면서 필수적으로 환경폐기물이 남발하고 지구를 오염시키는 것과 같다. 정보환경이 발달하면서 정보 쓰레기가 넘쳐나고 우리 모두에게 다방면으로 끼치게 될 해악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도 알지만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짜깁기식 자극적인 유튜브에 매료되어 “삼성이 베트남에서 철수한다며?”, “베트남에 한국 중소기업들을 다 쫓아낸다며?” 등등 들도 보도 못한 황당한 이야기를 전하며 목에 힘줄을 세운다.

우리 사회가 세계적인 초고밀도 사회로 성장하면서 사회의 편향된 대중 쓸림 현상이 사회문제로 부상한 지 이미 오래지 않은가?

##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며

그래도 희망은 있다. 기술은 발달되어야 하고 인류는 진보되어야 한다.

이제 생명공학, 나노공학을 넘어 양자역학으로 쿼텀 점프를 시도하면서 인류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불을 지핀 뇌 통신 공학이 일상화 되면, 인류는 생각만으로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을 조정·제어하고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미 뇌파를 활용하여 생각만으로 드론을 조정하고 컴퓨터를 동작시키기 시작하였으니, 집 안의 TV나 정



원의 스프링클러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볍게 조정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공유화된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양해지면, 생각만으로 목적지 이동이 가능해지고 차 안에서 드론으로 배달받은 브런치와 맛깔스러운 에스프레소를 즐기게 될지도 모른다. 화성으로 이주한 친구와 통화는 화성과의 거리에 따른 시간지연으로 불편하겠지만, 돌아가신 부모님과 육성 대화를 나누며 나약해지는 자신을 다시 추스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의 도약점이 바로 눈앞에 ChatGPT로 대기하고 있다.

- 안내: M+V=P Biz Academy, 캠퍼스 케이에서 베트남 진출 전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https://blog.naver.com/josephyglee1>” 또는 인터넷창에 “이영기.블로그.한국” 입력



**이영기**

국립경제대학교 (NEU) 방문 교수  
공유오피스 Campus-K 공동 창업  
FPT School of Business, 객원 교수  
josephyglee@gmail.com | kakao: josephyglee

초연결, 초지능, 초디지털이 핵심인  
글로벌 대전환 시대,

# “누가 주도할 것인가?”



## “글로벌 대전환 시대, 한국 기업가정신으로 융합하라”

*K-Entrepreneurship*

조규연, 탁진규, 엄재근 지음

코로나19가 만든 팬데믹, 글로벌 위기의 시기 K-방역, K-컬처, K-푸드, K-바이오 등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 기업가정신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또한, 전 세계 5천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국가 중 유일하게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했으며, 21세기 IT 최강국이다.

많은 학자는 기업가정신은 혁신적 창업의 근간 이고, 경제발전의 핵심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는 사회 전반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K-앙트프리너십(한국 기업가정신)으로 새로운 시대의 기회를 주도해야 한다.

# 융합시대에 다양성 전문가들이 하는 말

이종구

요즘은 어지간한 규모의 기업조직이라면 다양성과 포용의 문제는 중요한 실천사항으로 여긴다. 일반적으로 다양성은 ‘다름의 모든 방식(All the ways we differ)’이라고 정의하고, 이는 곧 기업에서 사람마다 가진 고유한 능력을 극대화하는 조직의 실천양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포용은 ‘다름을 가치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조직환경(Workplace where differences are valued)’으로 정의한다.<sup>1</sup> 하지만 많은 전문가가 다양성과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쏟아내는 말들은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제각각이다.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통찰을 주는 말들이 많아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sup>2</sup>

존슨앤드존슨의 최고다양성 책임자(Chief Diversity Officer)인 원다 호프(Wanda Hope)는 오늘날 똑똑한 기업이 되려면 시장의 인구통계학 프로파일어 어떻게 변하는지 똑바로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어제의 조직이 그냥 미래의 조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성과 포용을 실천하는 것이 곧 미래 비즈니스로 가는 지름길입니다.”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통신회사인 AT&T는 직원의 42%가 유색 인종이고, 독보적인 다양성 정책으로 유명하다. 최고 다양성 책임자인 신시아 마셜(Cynthia Marshall)은 AT&T의 다양성 정책을 언급하며 “우리는 직원들을



마치 우리의 고객 세그먼트와 똑같은 것처럼 구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객에게 진정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가 다양해져야 하기 때문이지요.”라고 말했다.

최근 매켄지나 PwC 등 여러 컨설팅 보고서에서 다양성이 기업의 성과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발표했다. PwC의 최고다양성 책임자인 마이크 딜런(Mike Dillon)은 “기업이 다양한 인력을 개발하고 보유하는 것이 바로 혁신이고 미래의 성장동력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배경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많은 질문이 쏟아지고 다른 차원의 생각들이 모이기 때문이지요. 결과는 어떨까요? 당연히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솔루션이 탄생합니다.”라고 말했다.

IBM의 CEO 루이 거스너(Lou Gerstner)는 1993

1 “Making difference matter: a new paradigm for managing diversity”, Ely, R. J., & Thomas, D. A. (1996), *Harvard Business Review*, September–October, 79–90.

2 “Diversity & Innovation”, Novid Parsi, *HR Magazine*, 2017. 02.

년 취임했을 당시에 다양성이 IBM의 가치사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다양성이란 다양하고 다문화적 시장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고객들로부터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 자체가 다양성을 추구해야 하지요.” 또한 그는 “조직 내에서 차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잘못된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 차이를 장려하는 문화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은 곧 창조적 배움으로 이어지고 이 과정을 통하여 비즈니스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바로 건설적 붕괴(Constructive Disruption)가 필요한 시점입니다.”라고 말했다.

다양성 전문가인 하워드 로스(Howard J. Ross)는 다양성과 포용을 정의하기를 “다양성은 파티에 초대 받은 것이고, 포용은 파티에서 어울리며 춤을 추는 것입니다.”라면서 포용의 실천을 강조했다. 사실상 포용의 실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의식적으로 생긴 편견들과의 싸움이다. 그것은 자신이 오랫동안 겪어온 체험과 학습의 결과가, 내면에 무의식적으로 잠재해온 것이기에 깨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기업은 다양성 교육을 통하여 직원들의 무의식 편견(Unconscious Bias)을 깨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다양성 교육은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마치 운동하러 체육관에 온 것과 같아요. 실제 운동은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다양성의 팀을 만들면서 사람들의 생각하는 스타일이 각기 다르다는 속성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예컨대 어떤 팀원은 큰 그림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 반면, 어떤 이는 과정을 중시한다. 인지다양성(Cognitive Diversity) 전문가인 데이비드 록(David Rock)은 “인지 다양성의 문제 즉 팀원 각각의 다양한 관점이 팀을 똑똑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또한 무의식 편견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으로 강조하면서 “무의식 편견은 그 자체가 무의식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가 결코 인지할 수 없지요. 단지 다른 팀원들에 의해서만 발

견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포용에 관하여 그는 “리더들이 흔히 저지르는 오류 중 하나가, 포용을 강조하기 위해 소수그룹 직원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오히려 다수그룹이 민감하게 반응하여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요.”라고 충고하면서 “그것보다는 간단한 실험습관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컨대 직원들 간에 5미터 거리 내에서는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기 등이 그런 것이지요.”라고 말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많은 전문가가 다양성과 포용은 비즈니스의 핵심목표와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는 점이다. 그것이 기업에서 인권이나 공평의 이슈로만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시장을 위한 비즈니스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전문가들의 말속에서 다양성과 포용은 목표를 정할 수 있지만 최종 목적지가 없는 여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가 정의한 다양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먼저 다름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장려하는 끊임없는 여정이다.”



**이종구** 경영학박사

전자공학도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거쳐 노키아, 오라클 등 글로벌 기업에서 비즈니스 경력을 쌓았다. 이어서 글로벌 IT 기업인 'NICE'와 '제네시스 코리아'에서 한국 지사장을 역임한 IT 전문가이다. 한편 경영학을 수학하면서 '다양성(Diversity)'을 처음 접하고 다양성을 기업 경영에 접목시킬 수 있는 전략을 찾아 여러 논문을 발표했다. 2015년에 기업 전략서인 『다양성 전략(Diversity Strategy)』을 발간하고 2019년에는 다양성 칼럼집인 『다양성 시대(Diversity Era)』를 발간하면서 다양성 실패에 나서고 있다. 현재는 고려대학교 인공지능연구소(HI-AI & Computing) 산학협력교수로 재직중이다.

# 자폐성장장애인의 바른 이해의 과정

강은희



## 1. 자폐성장장애인의 ‘disorder’

자폐성장장애인은 반복적이고 제한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일상생활 적응과 교육적 성취에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강은희, 2022). 자폐성장장애인의 일상생활 적응과 교육적 성취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지시에 대한 긍정적인 반

응(order)이라고 할 수 있다. 부언하면 누군가의 요구에 적절히 반응하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될 때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폐성장장애인은 반복적이고 제한적인 관심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외부세계와 단절된 것처럼 보이게 하며,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비칠 때가 많다. 바로 여기가 ‘order’를 ‘disorder’로 바꾸는 지점이다. 자신에게 요구되

는 order를 스스로 disorder로 바꾸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은 disorder로 인한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중에서도 의사소통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우선하는 사회적 기능으로 disorder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완벽하게 방해한다. 다시 말해 의사소통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disorder라는 단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없다는 것이다.

자폐성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 적응과 교육적 성취를 위해서는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선행되어야 한다.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방식은 자폐성장애인이 지속적으로 보이는 반복적이고 제한적인 관심과 활동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관찰하여 의사소통 방식을 찾아 사회적 상호작용의 방식으로 잘 활용하게 된다면, 일상생활 적응과 교육적 성취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이다.

## 2. 자폐성장애인의 disorder의 양상

자폐성장애의 주된 특성인 반복적이고 제한적인 관심과 활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예를 들어 상대방의 손에 들려 있는 과자를 본 아이의 반응을 살펴보자. 과자를 먹고 싶을 때는 과자를 달라는 요구를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각색일지라도 매우 적극적으로 한다. 이것은 비장애인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과자를 먹고 싶지 않을 때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상대방이 과자를 권하는 경우, 비장애인은 사양의 뜻을 표현한다. 이것은 정반응(order-지시따르기)이다. 그러나 자폐성장애인은 마치 귀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어떠한 표현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폐성장애인의 정반응(disorder-지시거부)이다. 이것을 알 수 없는 상대방은 반응이 없는 자폐성장애

인에 대해 권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정확한 의사표현(order-지시따르기)을 하지 않는 것(disorder-지시거부)이 그들의 표현 방식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폐성장애인의 정반응인 disorder(지시거부)는 상대방의 요구를 무시하고 스스로 원하는 것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어려움이 발생한다. 보통의 경우 거절의 의사를 짐작해 표현하는 경우보다는 극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보통 아동의 관심사가 과자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아동의 주된 관심사는 과자를 먹고 싶다, 먹고 싶지 않다는 자신의 생각이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에 따라 매우 충실하게 움직일 뿐이다. 그들은 말과 행동 등 모든 표현방법을 동원하여 자기의 생각을 표현한다. 단지 그것이 비장애인의 의사표현 방식과 다를 뿐이다. order(지시따르기)를 해야 하는 경우에 disorder(지시거부, 무반응)를 매우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는 일이 쉽지 않다.

또한 주변인들은 자폐성장애인의 disorder(지시거부)를 매우 힘들어한다. 그리고 가르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disorder는 자폐성장애인의 두드러지는 특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는 일은 쉽지 않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 자폐성장애인을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수용하지 않는 어떤 접근도 문제를 키울 뿐이다. 이런 경우 자폐성장애 당사자는 오히려 그런 상황을 즐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부모,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들은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 3. 자폐성장애인의 disorder 해법

자폐성장애인(developmental disorder)에게 dis-



order(지시거부)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 이유는 자신의 반복적이고 제한적인 관심과 활동에 온통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자기만의 세계와 생각에 빠져 있는 모습(자기중심성- egocentrism)이라고 할 수 있다. 자폐성장장애인이 자신의 반복적이고 제한적인 관심과 활동에 집중하는 것은 자폐성장애 당사자뿐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생태체계의 기본 단위인 가족의 삶의 질을 위협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모든 치료와 교육은 여기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자폐성장장애인은 결코 무능하지 않다. 이는 자폐성장장애인은 생각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방향성이 비장애인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자폐성장장애인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자폐성장장애인이 보이는 disorder의 해법이 될 수 있다.

### 1) 중간지점- selforder(자기생각 점검하기)의 필요성

요즘 많은 매장에는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어 매장 직원과 대면 없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주문할 수 있다. 즉, 키오스크는 self-order를 가능하게 해주는 장치인 것이다. 이런 것을 활용하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일상 유지에 필수적인, disorder에서 order로의 전제조건인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카페에 가서 음료를 주문해야 하는 경우에 자폐성장장애인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지만 주문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하다. 도움을 주려고 무엇을 원하는지 질문을 하면 정반응인 order(지시따르기)를 해야 하나, 탄청을 부리거나 무반응인 disorder(지시거부)를 한다. 결국 자기가 원하는 음료 주문은 물 건너가고 심기만 불편해진다. 따라서 disorder에서 order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는, selforder(자기생각 점검하기)라는 중간 지점이 필요

한 것이다.

### 2) selforder(자기생각 점검하기)의 선행조건

자폐성장장애인의 selforder(자기생각 점검하기)를 위해서는 그들이 생각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폐성장장애인은 반복적이고 제한적인 관심과 활동을 하면서 자기만의 생각 속에 빠져서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한다. 결국 이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을 무능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질문에 대한 반응은 오롯이 당사자의 몫이고,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기본이다. 따라서 질문은 자폐성장장애인의 관심사에 대한 우리의 관심 표명이다. 언어의 문제가 없는 자폐성장장애인의 경우는 간단한 일상 관련 질문을 통해 당사자의 disorder의 매커니즘을 드러내도록 확장해가는 것이 가능하다. 지속적으로 질문들을 주고받다 보면 당사자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자폐성장애 당사자의 오류를 스스로 자각하게 만들면, 자신의 disorder의 오류를 스스로 수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워낙에 강력한 자기중심성에 기반한 disorder를 철회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자기결정에 따른 selforder(자기생각 점검하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결국 selforder(자기생각 점검하기)는 자폐성장장애인의 반복적이고 제한적인 관심과 활동을 알기 위한 시도이며, 이를 통해 자폐성장애 당사자의 숨겨진 능력을 찾아내는 과정인 것이다. 오직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자기의 능력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가 관건이다.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하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키오스크에서 제시하는 질문을 따라 반응하고 선택하기, 순서 기다리기 등 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가정하에서만 selforder(자기생각 점검하기)는 disorder에서 order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중간 지점이 된다. 따라서 자폐성장장애인이 주로 보이는 도전적 행동 등으로 인해 혼란스러워진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폐성장장애인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폐성장장애인에 대한 바른 이해는 저들의 독특함을 인정하고 저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함께, 또 따로 하는 삶을 위한 여정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강은희** 사회복지학 박사  
호호알멘토 원장,  
강은희 사회성발달연구소 운영,  
사회적협동조합 모두가 이사,

강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장,  
경기도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자문위원,  
한독교육문화연구원 연구위원

# 아직도 논문때문에 고민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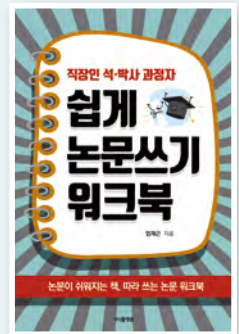
직장인 석·박사 과정자 쉽게 논문쓰기 워크북

**논문이 쉬워지는 책,  
따라 쓰는 논문 워크북**



- ★ 논문이 뭐지?라고 남들에게 묻지도 못하고 있는 분
- ★ 논문은 써야 하는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
- ★ 교수님께 설명을 들어도 논문이 도통 이해가 안가는 분
- ★ 읽어야 할 논문은 쌓여 있는데 읽어도 답이 없는 분
- ★ 논문에 막혀서 졸업을 포기하고자 하는 분
- ★ 제목도 정하지 못해 몇 달 동안 교수님께 연락도 못하는 분
- ★ 투고도 못하고 논문만 몇 년 동안 만지작거리고 있는 분
- ★ 논문에 대해서 학생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을 찾는 분
- ★ 인생에서 논문을 최초로 써보고자 결심해본 분
- ★ 논문쓰기 스테디를 만들고 무엇부터 시작할지 모르는 분

논문에 관해 설명하는 책들은 시중에 많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쓰기 연습을 하도록 돕는 책은 없다. 이 책은 쓰기 연습이 부족한 직장인 석·박사 과정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기획되었고, 시간이 부족한 연구자에게 맞춘 전략으로 최적화되어 있다. 논문의 기본 개념 이해부터 논문 제목 정하기, 목차 잡기, 논문쓰기, 학술지 선정과 투고, 심사결과 통보 및 대응, 게재되기까지 논문의 전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담고 있다.



# 가열되는 오크(woke) 논쟁, ESG의 미래는?

이 종재



# 미국의 18개 주지사들이 3월 16일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이끄는 반ESG운동 연합체 결성을 발표했다. 주 정부가 관할하는 기금운용에서 ESG 반영을 금지하고 'ESG운동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건 연합체다.

# 3월 1일 미 상원은 퇴직자 연금의 ESG 투자를 막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월 22일 하원에 이어 미국 상·하원 모두 바이든 행정부의 ESG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특히 민주당(51석)이 공화당(49석)보다 우세한 상원에서 ESG 반대표가 50표(표결 결과 찬성 50 : 반대 46)나 나와, 신재생에

너지를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있는 바이든 정부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 공화당 성향 미국 25개 주의 법무장관들은 2월 15일 ESG를 고려한 투자가 가능토록 한 미국 노동부(DOL)의 관련 법 시행 중단을 목표로 바이든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21명의 주 법무장관 그룹은 기후 및 DEI(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를 기준으로 한 투자가 고객의 이익 극대화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따지는 서한을 세계적인 법륜 자문사인 ISS와 클래스 루이스에 발송했다.

최근 들어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반ESG 움직임들이다. 공화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반ESG운동은 급기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 원인으로 ESG와 DEI를 거론하는 정치권의 논란으로 비화됐다.

‘오크(woke, 깨어있는) 논쟁’으로도 불리는 미국의 반ESG 움직임은 지난해부터 서서히 일기 시작하더니, 올해 들어 더욱 노골화하는 양상이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 래리 핑크 간 설전이 벌어지고,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갈라져 싸움은 이념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석탄과 석유 등 탄소배출과 직결되는 에너지산업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주요 주에서는 에너지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선별 투자 금융기관들이 주 단위 연기금의 운용사에서 배제된다.

ESG 반대의 목소리는 ‘비즈니스는 주주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라는 전통적인 주장 이외에 ‘ESG 투자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며, ‘자본시장을 위협하는 극좌파와의 싸움’이라는 데에 이른다. ESG에 기반한 금융활동이 주주의 수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기본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공화당 정치인들은 4월 기업의 ESG 공시기준을 발표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를 고소하겠다고 나섰으며, “ESG가 비즈니스를 정치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누가 반ESG를 주도하는가?

최근 반ESG 운동 18개 주 연합체를 주도한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가장 목소리가 큰 ESG 반대론자의 한 명이다. 그는 지난해 플로리다주 연기금의 투자 과정에 ESG 요소의 편입을 금지시키고,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블랙록에서 운용자금 20억 달러를 인출했다. ESG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블랙록에 더 이상 주 정부의 연기금을 맡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주 정부 및 지역 내 조달 및 계약조건에 ESG 정보의 반영

을 금지토록 했다.

플로리다주와 같이 ESG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주는 텍사스, 웨스트버지니아, 미주리, 루이지애나, 켄터키 등 20여 개에 달한다. 이들 주는 석유 등에너지 기반 산업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ESG가 주내 대표 산업의 돈을 차단하고 있다.”는 주장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석탄산업 투자 제한을 이유로 주요 5개 금융기관과의 거래 중단을 선언했고, 아이다호주, 켄터키주, 텍사스주 등은 석유·가스·석탄 회사와 거래를 제한하는 은행에 대한 사업 면허 취소를 법제화하고 나섰다. 오클라호마주와 아칸소주 등에서도 ESG 기준을 주의 연금 운용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했다(표 1) 참조).

‘오크 논쟁’은 지난해 5월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발언으로 분기점을 맞았다. 머스크는 당시 “ESG는 악마의 화신”이라고 비판했다. 신용평가기관 S&P가 ESG500 지수에서 테슬라를 제외시킨 데 따른 반응이었다.

S&P500 ESG 지수는 ESG 관련 데이터를 토대로 상장사 순위를 정하고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평가기준이다. S&P는 지난해 평가에서 테슬라를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전기차가 배기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관련 공시의 부족으로 투자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며 사용 후 배터리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를 들었다. 머스크는 이에 대해 “ESG는 사기이고 가짜 사회 정의를 말하는 전사들에 의해 무기화됐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반ESG를 주제로 한 저서 『Woke Inc.』가 2021년 초 발간돼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이 책의 저자 비벡 라마스와미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표로 자산운용사 스트라이브를 설립해 반ESG 진영의 관심을 모았다. 그는 “기업이 정치·사회적 문제에 연루되지 않고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에만 집중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환경·사회 관련 이

〈표 1〉 주요 오크 논쟁 2023년 일지

월일	주체	반ESG	ESG 추진	특징
3월 20일	바이든 대통령		미 의회의 반ESG 결의에 거부권 행사	대통령 취임 후 행사한 첫 거부권
3월 16일	18개 주 정부	ESG 투자금지 연합체 출범 선언		플로리다주 디센티스 주지사 주도
3월 1일	미 상원	근로자 퇴직금의 ESG 투자 반대 의결		2월 22일 하원 결정에 상·하원 모두 반대
2월 27일	와이오밍주		ESG 투자 금지, 업무 활성화 반대법 부결	
2월 22일	공화당 의원	기후공개 규칙 반대 서한 SEC에 전달		SEC 기후공개규정을 과도한 규제 로 규정
2월 20일	27명 공화당 성향 주 법무장관 그룹	근로자 퇴직자금 운용에 ESG 고려 금지 촉구 서한 발표		의회 지도자들에게 발송, 의회의 반ESG 여론 조성
2월 15일	22개 주 법무장관 그룹	기후 관련 공개 및 탄소 감축 목표에 이의제기		연방관련위원회(FARC)의 권한 위배 지적
2월 14일	애리조나주 신임 주지사		반ESG조치에 대한 지원 중단	전임 주지사의 반ESG 활동에 반대
2월 14일	플로리다주 디센티스 주지사	투자자 자금조달에 ESG 적용 불법 선언		주지사의 다양한 반ESG 법안 중 하나
2월 6일	의회 공화당의원 그룹	SEC 공개 규칙을 저지하는 워킹그룹 발족		SEC 규정의 환경 재무 조항 반대
2월 1일	캘리포니아주		대기업 탄소배출 스콧3 의무화법안 결의	출장, 출퇴근 등에 의한 배출보고 의무
1월 31일	의회 민주당의원 그룹		ESG의 정당성 확산의원 그룹 출범	ESG 투자 규모 대규모 확대 예상
1월 27일	25개 주 법무장관 그룹	ERISA법 시행 중단을 위한 소송 개시 발표		12조 달러 퇴직안전자금, ESG를 고려한 투자 제한 목적
1월 26일	UNPRI		책임투자 보고원칙 개정 발표	ESG 강화 규정, 2023년 5월부터 적용
1월 20일	공화당의원 그룹	ISS, 글래스 루이스의 ESG 자문 지적		전문 자문사의 ESG 관련 지원에 경고
1월 18일	Fed(연준)		6개 대형 은행에 기후위험 훈련결과 보고 지시	7월까지 ESG 적용을 위한 은행의 대응 준비상황 보고
1월 10일	바이든 행정부		운송 부문 탈탄소 지원정책 발표	탈탄소의 정책 의지 확인
1월 4일	켄터키주	홈페이지 내 ESG와의 전쟁 선포 오픈		투자 제외 금융기관 리스트 발표

출처: 미국 『ESG TODAY』 등 언론 종합

슈를 투자정책에 반영하는 시장에 반대 분위기를 분명히 했다.



## 반ESG 주장의 내용은?

올해 들어 이 같은 반ESG의 움직임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화하는 양상이다. 연초 미 공화당은 SEC가 예고한 기후공시 규정 발표에 초점을 맞춰 이를 반대하는 ‘ESG 워킹그룹’을 출범시켰다. 워킹그룹은 4월 공개되는 SEC의 규제 과잉 억제를 핵심의제로 제시하고 나섰다.

2022년 3월 공개된 SEC 기후공개규정 초안은 2023년 4월 최종안의 공식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의견 조율 중이다. 규칙은 모든 상장기업에 적용되며, 재무제표와 함께 기후 관련 연차보고서나 증권신고서에 기후 관련 위험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보를 공시토록 하는 내용이다.

SEC 공시 원칙 중 논란의 핵심은 스콥3과 1% 조항이다. 스콥3는 기업이 직접 배출(스콥1)하거나 전기와 가스처럼 구매해 배출(스콥2)하는 탄소량과 달리, 가

치사슬 내에 있는 협력기업의 배출량과 임직원의 출장과 출퇴근 과정에서 배출하는 양까지 해당 기업의 보고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제 ESG 공시표준인 ISSB(국제지속가능표준위원회)나 ESRS(유럽지속가능공개기준)는 물론, 상당수 국제표준들이 공시토록 하면서 스콥3는 ESG 관련 최대 이슈 중 하나로 자리하고 있다.

심각한 기상이변 등에 따른 위험을 파악해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의 합이 관련 재무항목(line item)의 1% 이상인 경우 공시토록 하는 SEC 규정도 쟁점이다. 이상기후에 따른 영향(물리적 위험)과 탄소배출량 감축정책 등으로 발생하는 영향(전환 위험)에 대응하고 대비하는 비용을 따져 보고서에 담으라는 취지다. ‘ESG 워킹그룹’ 출범을 주도한 패트릭 맥켄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은 “진보주의자들은 극좌 이데올로기를 미국 국민들에게 강요하기 위해 기관들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도구는 ESG”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21명의 공화당 성향 주 법무장관들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국제주주서비스)와 글래스 루이스에 항의서한을 보냈다. 양사는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기관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상 기업의 주총 안건을 분석해 의결권 행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자문하는 법률자문 회사다.

항의서한의 골자는 이들의 자문이 기업의 기후 및 DEI 정책을 지원하는 등 ESG를 고려한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있어서, 주주와 투자사 고객들의 금전적 이익 고려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서한에서 법무장관들은 “넷제로 등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경영진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조언은 기업의 금전적 활동보다 사회적 목표에 기반한 활동”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기후 중심 투자자 협의인 ‘기후행동100+’ 등 넷제로 투자그룹과의 협력에 대해 그 배경을 설명하도록 했다. 서한 서명자인 캔자스주 법무장관 크리스 코바흐는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지원이 주 근로자

의 연금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연기금은 특정 정치적 의제가 아니라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미국 언론이 전하고 있다.

공화당 성향의 미국 25개 주 법무장관들은 1월 말 근로자 퇴직금 운용에 ESG 요소를 반영토록 하는 새로운 노동부(DOL) 법안(ERISA,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의 시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1974년 제정된 관련 법은 총자산 12조 달러에 달하는 1억 5,200만 명 근로자 퇴직 저축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0년 6월 트럼프 행정부는 시대를 역행한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ESG 성격의 투자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규칙을 적용했다. 그러나 2021년 5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결정을 뒤집어 2023년 1월부터 적용토록 회복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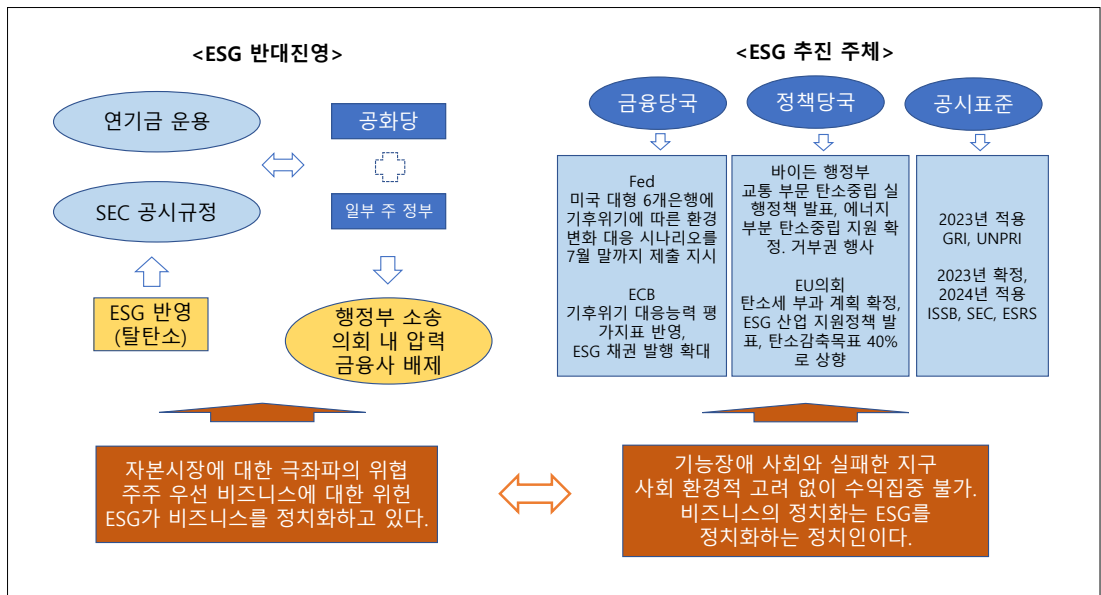
바이든 행정부의 ERISA법에 대해 공화당 성향의 주 정부 법무장관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상하원

모두 이 법 시행의 반대를 결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의 이 같은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바이든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첫 사례여서, 강경한 ESG 정책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텍사스주 법무장관 켄 팩스톤은 “이 규칙은 퇴직자 자금을 걱정하는 미국인을 모욕하는 것이며 바이든 행정부가 ‘깨어 있는(woke)’ 정치적 의제를 위해 미국 노동자의 재정적 안정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상당 기간 ‘오크 논쟁’의 중심에 자리할 전망이다.

투자 의사결정에 ESG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비판적인 공화당 고위 인사들은 적지 않다. ESG 투자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며, 연기금의 재무성과를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골자다. 테네시주의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과 루이지애나주의 존 케네디 상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은 ESG 기준을 투자 의사결정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하거나 공개성명을 냈다.

<표 2> 오크 논쟁 개념도



## 기후 대응 논쟁의 역사는?

현재 치닫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미국의 논쟁은 사실 20여 년 지속되고 있는 과정의 연장선상이다. 지구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가 공식 발효(2005년)되기 전에 미국 정부는 아예 참여를 거부했다.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면서도 미국 경제에 부담이라는 이유로 2000년 부시 행정부는 전 세계 55개국 이상이 비준한 국제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다.

미국의 불참, 중국과 인도의 이산화탄소 감축의무 배제 등으로 교토의정서는 초기부터 활력을 잃었다. 2020년까지 연장기로 한 2라운드 협약에는 온실가스 주 배출 국가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빅 4'가 불참하면서 교토의정서는 사실상 빈껍데기로 전락했다.

2015년 파리에서 열린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COP21)는 기후변화 대응을 선진국 중심에서 개도국도 포함하는 형태로 강화했다. 195개 선진·개도국 모두 지구온난화 등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고 5년마다 상향된 탄소감축 약속 이행을 점검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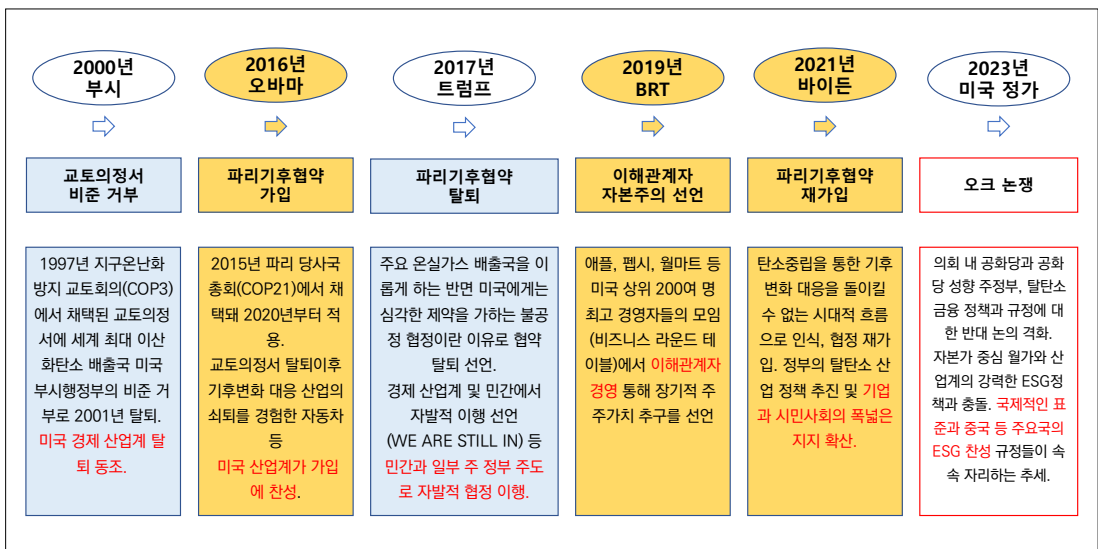
로 한 것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약 합의 직후 협약 가입을 공식 선언했다. 국제적으로 힘을 잃어가던 미국 산업계는 협약 참여에 따른 정책적 산업지원과 경쟁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찬성 여론에 실었다. 그러나 2017년 6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불이익을 이유로 협약 탈퇴를 선언했다.

트럼프의 협약 탈퇴는 선거전의 주요 캠페인이었고, 결국 당선됐으나 경제계의 적지 않는 반발을 불러왔다. 미국 주요 230개 시, 9개 주, 1,700여 경제계와 320개 이상의 대학들이 트럼프의 탈퇴에 공식적인 반대를 표시했다. 'WE ARE STILL IN' (WASI)이란 구호 아래 2,500개 이상 주요 리더 그룹들이 WASI 선언에 서명했다.

2019년 미국 경제계는 ESG 경영의 상징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선언하고 나섰다. 우리나라의 전경련과 비슷한 성격의 매출 상위 200대 그룹의 모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한 경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해관계자 경영은 이후 다보스 포럼에서 재차 확인됐고 바

〈표 3〉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논쟁 과정





이들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파리기후협약의 복귀를 대통령 취임 첫날 서명했다.

하지만 미국 의회 내 공화당과 공화당 성향의 상당수 주 정부가 ESG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반ESG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 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이처럼 앞치락뒤치락 양당의 집권과 궤를 함께하고 있다.

## 오코 논쟁, 대세 ESG에 미칠 영향은?

정치권의 반ESG를 주도하고 있는 플로리다주 디센티스 주지사는 2023년 초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에 이어 차기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 2위에 올라 있다. 대선 추이에 따라 대세 ESG에 적지 않은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다.

사실 그동안 미 공화당과 자본주의의 상징인 월가는 우호적인 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ESG를 놓고 월가와 공화당이 대립하는 양상이어서, 대선 결과만으로 ESG의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이미 ESG 요인의 투자 결정과 자금 운용이 주류이며, 규범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국제기구들이 ESG의 법제화 및 의무화 규정을 속속 내놓고 있어 대세 ESG를 되돌릴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미국 연준(Fed)이나 유럽중앙은행(ECB) 등이 금융기관의 ESG 반영을 규범화하는 내용을 속속 발표하고 있고, 주요국들이 탈탄소 정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월가의 큰손들은 ESG 투자를 강화하고 있고, 관련 자금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기업의 ESG 경영활동을 낱낱이 알리는 공시 의무화 시기도 올해부터 본격화됐다. 국제 보고표준인 GRI(글로벌공시 원칙)와 유럽의 지속가능보고 기준(CSRD)이 작동 중이고 국제적인 ISSB와 미국 증권위원회 SEC의 규정은 내년부터 공식 적용된다. 경영 현장과 금융시장에서 적용될 ESG 규정들은 이제 ESG

경영을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굳히고 있다.

ESG가 자본시장에 대한 극좌파의 위협이라는 주장과, '기능장애 사회와 실패한 지구'에서 인류의 미래는 없다는 논리의 싸움은 일정 기간 ESG 경영 현장에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자료]

- 유연철, 파리협정의 이해와 기업의 대응전략. 서울대 ESG 컴플라이언스 과정. 2023. 3. 21
- 최원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기후협정 탈퇴: 배경과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IFANS) 2017-22.
- 이가용·김현, 미국의 파리협정 가입 및 탈퇴요인 분석. 한국과 국제사회 6권 4호. 2022.08
- 외교부, 파리협정 의의 및 특징. 2017. 5. 29.
- Lyons O'Keeffe, IQ-EQ ESG 책임자, 기고문. 2023. 2. 2.  
<https://www.esgtoday.com/guest-post-esg-trends-that-will-define-2023-and-beyond/>
- GRI, Reuters IMPACT, ESG TODAY 등 미국 내 주요 지속 가능 전문 기관 및 매체 홈페이지



이종재

현) PSR(공공기관사회책임연구원) 대표  
현) 한국생산성본부 ESG 위원장  
전) 한국일보 편집국장 논설위원, 전) 코스리(KOSRI) 대표  
저서: 『재벌과 가벌』(1991, 공저),  
『재벌이력서』(1993), 『책임의 시대』(2013, 공역),  
『CSR은 왜 실패했는가』(2015, 공역)  
『건강한 기업의 장수이야기』(2016)  
『공공기관 지방을 살린다』(2020)

# 사회적 가치실현과 SDGs

탁진규

사회 양극화·불평등 등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제, 특히 코로나19가 불러온 감염병 위기로 인해 이전 사회에서 중요시해온 이윤과 효율성보다 사람과 공동체를 중심에 둔 사회적 가치의 필요성이 더욱 드러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8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에 따르면, 한국인의 삶의 질 지수는 OECD 조사 대상 40개국 중 30위를 기록했으며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다.

OECD 2018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우리나라 순위 (총 40개국)

전체 순위	30	환경	40
주거	36	시민참여	13
소득	23	건강	10
일자리	27	주관적 웰빙	33
사회적 관계	40	안전	25
교육	13	일과 삶의 균형	37



대한민국 삶의 질 지수(출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영역별로는 사회적 관계, 환경 영역에서 40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사회적 관계 영역은 10점 만점에 0점을 받았다. 세부 지표로는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응답이 78%로, OECD 평균 89%에 한참 못 미치게 나타났다. 환경 영역은 OECD 최고 수준의 초미세먼지 농도지표와 40개국 중 29위인 수질지표로 인해, 10점 만점에 2.4점을 얻어 꼴찌를 기록했다. 일과 삶의 균형 영역에서는 10점 만점에 4.1점으로 37위, 주거 영역은 6.6점으로 36위를 기록했다. 주관적 웰빙 영역에서도 4.1점으로 33위에 그쳤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OECD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연간 노동시간 OECD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다.

##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란, 사회·문화·환경·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한다. 사회적 가치의 범위는 환경, 안전, 인권, 사회적 약자 배려,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의 의미는 일정한 경제가 설정된 영토에서 종교·규범·가치관·문화·언어 등을 상호공유하고, 특정한 제도와 조직을 형성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성적 관계

를 통하여 구성원을 재생산하면서 존속하는 인간집단을 말한다. 정치·문화·제도적으로 독자성을 지닌 공동의 관심과 신념, 이해에 기반한 여러 사람의 결사체이다. 소규모의 가족에서부터 직장과 학교, 전체사회 및 그 일부인 정치·경제·시민·노동·문화사회 등을 지칭한다. 또, 다수의 사람이 어떤 조직적인 형태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가치’의 일반적인 넓은 의미로는 일상생활에서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모든 것, 즉 어떤 종류의 ‘ 좋음’, ‘바람직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사물에 부여하는 값어치와 중요성을 의미한다. 다른 대상들과 구분되며, 욕망의 대상으로 추구되며, 그 욕망이 정당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무엇인가를 지칭한다.

사회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사회적 가치는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가치로 조직 구성원의 자존감 변화, 심리적 안정감, 공동체 의식 강화,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정서적 가치로 정의된다.

사회적 가치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 자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공유가치 창출(CSV), ESG 등이 있다.

사회적 가치와 유사한 개념

구분	내용
사회적 경제 (Social Economy)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모든 경제 활동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	국민이 협력함으로써 공유한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성취하도록 만드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질인 무형자산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조직이 사회, 경제, 환경문제를 사람, 지역 공동체 및 사회 전체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하는 활동

공유가치 창출 (Creating Shared Value)	기업의 가치사슬 내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이를 기업의 경영전략에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활동
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기업의 전략을 실행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에 관한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

출처: ESG 관련 개념의 정리와 이해, 한국법제연구원 일부 수정

##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은 자본주의의 자기조정성에 대한 실패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인간은 시장경제 체제에 순응하는 도구일 뿐이며, 이러한 사회에서 인간은 상호호혜적 책임을 수행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인격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 글로벌 경제 위기, 실업, 경제 양극화 등의 문제는 시장 자본주의 경제로 해결될 수 없으며, 오히려 시장이 자기조정 체제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빈곤 탈피, 노동가치 인정, 사회안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한 시민 행복추구 등의 기본적 사회가치 회복이 필요하며, 경제가 사회 안정성을 수반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본적 사회가치를 보장하는 규범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제하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즉, 사회적 가치는 개인의 이익이나 욕망을 넘어서는 공동체에 이익이 귀속되고 협력적 관계를 지향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가치관이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는 산업화 시대 혹은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대두되는 개인주의 가치 확산, 익명성을 수반한 사회범죄, 물질만능주의 팽배로 인한 인간성 상실, 사회참여 저조 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 지속가능발전목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정책목표이다. 범지구적으로 실천하기로 한 17개 목표(goal)와 169개 세부목표(targets), 231개 지표(indicator)로 구성되어 있다. 인류의 보편적 문제인 빈곤, 질병, 교육, 아동, 여성, 난민, 분쟁 등과, 지구 환경문제인 기후변화, 환경오염, 에너지, 물, 생물다양성 등과, 경제·사회 문제인 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과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경제 등의 이슈를 포괄하고 있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출처: www.un.org)

## 사회적 가치의 구성요소

한국 정부는 사회적 가치의 구성요소로 13가지를 발표하였다.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 환경의 유지,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경제적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윤리적 생산·유통을 포함

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공동체이의 실현과 공공의식 강화 등이 있다.

### 사회적 가치 구성요소

NO	사회적 가치	주요 의미
1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행복추구권, 평등권, 알 권리, 직업의 자유, 안정적 주거생활 보장 등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보장
2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생활환경의 유지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적극적 조치 필요
3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인간다운 생활의 기본조건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국가에 요구하고 국가가 이를 제공
4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보장, 노동3권, 안정적인 근로조건 유지, 고용안정 등
5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인, 기타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 추진
6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정
8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민간·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축소 등 좋은 일자리 확대
9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자치와 분권의 원칙을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 실현
10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 해소

11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사회적 존재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인권, 노동권, 환경,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공헌, 좋은 지배구조 형성
12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13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민주적 의사결정과 시민참여를 통한 국민주권 국가실현을 위한 정부 운영방식 개선, 참여기제 확보, 참여수준 심화

출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 관계부처 합동, 2020

[참고문헌]

- 김은희, 이용재(2017).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에 대한 태도.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 박명규, 이재열(2018). 사회적 가치와 사회혁신, 파주: 한울
- 이미숙, 최외출(2011). 단체참여와 사회자본이 사회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자치연구

- 진희선, 송재룡(2013). 칼 플라니의 '전환적' 사회경제 사상에 대한 고찰. 사회사상과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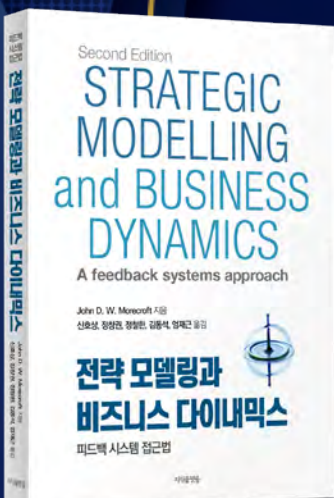


탁진규

- 현) 명지전문대학 교양과 교수
- 현) 한국생산성본부 전략적의사결정 강의교수
- 현) 한국산업교육학회 이사 / 현) 한국성인교육학회 이사
- 현) 한국융합경영학회 이사 / 현) 진성리더십 연구원장
- 현) 경영지도사(HR/리더십/조직개발)
- 전) 순천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강의교수
- 전) 현대경제연구원 인재개발원 전문교수

# 전략 모델링과 비즈니스 다이내믹스

★★★ 피드백 시스템 접근법 ★★★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피드백 시스템 사고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예측 분석법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기업, 정치, 군사, 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다양한 정부 프로젝트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환경, 사회, 산업 전반에 걸쳐진 다양하고 복잡한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시나리오 모델링은 현상을 예측 가능하게 하며 전략적 사고를 갖게 한다.

저자 John Morecroft는 런던 경영대학원에서 다양한 시스템사고 및 전략 모델링 수업을 진행하였고, 이 책이 해당 수업에서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다. 이 책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시스템다이내믹스 분야의 교과서로 명성이 높은 만큼 한국에서도 꼭 필요한 책이다. 영어 원문으로 일부 대학원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한국 번역본이 나와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을 공부하고자 하는 국내 독자들에게 쉽게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한 전략 모델링 교재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John D. W. Morecroft 지음 | 신호상, 정창권, 정철한, 김동석, 엄재근 옮김

# 길바닥 지혜를 찾아 떠난 세계일주 기행

이규형



## 세계일주 출국 2022년 8월 15일 파리, 프랑스

### 출국 전야

어젯밤까지 짐을 넣었다, 뺐다 하며 28인치 캐리어의 무게를 23kg 이내로 하려고 했지만, 결국 25kg가 넘는다. 유럽 내에서 로컬(local) 항공기를 이용할 때

에는 수하물의 무게를 20kg로 제한하는 항공사가 많고, 초과하면 비싼 요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가능한 무게를 줄여보려고 했지만, 한번 싼 가방무게를 줄이는 것이 쉽지 않다. 중간에 현지에서 먼저 소비할 것, 버려도 될 아까운 것을 버려서 가방무게를 줄일 것을 다짐하고, 일단 모두 가져가기로 했다. 결국 묵직한 캐리어를 끌고 출발한다.

나의 여행 짐은 컴퓨터와 여행서류 등을 넣은 백팩과 28인치 캐리어 한 개가 전부다. 123일의 세계일주 기간에 나와 동반할 모든 것이 두 개의 가방에 담겼다.



### 출국 전 인천공항

2022년 8월 15일, 오전 11시 50분 발 대한항공 편으로 세계일주 여행을 떠난다. 첫 목적지는 프랑스 파리.

공항전철을 이용하여 대한항공이 이착륙하는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에 도착하니 아침 8시 반이다. 공항은 6월 중순 태국에 갔을 때보다는 조금 이용객이 많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여행객이 현저히 줄어서 아직도 한산한 모습이다. 코로나19 이전에 많은 이용객이 북적대던 공항이었는데, 이런 거대한 시설이 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탑승권을 받기 위해 대한항공 체크인 카운터로 갔다. 내 앞에 승객이 없어 곧바로 코로나19 예방접종확인서를 보여주니 탑승권을 발급해준다. 보안검색대에도 이용객이 많지 않다. 출국수속을 순식간에 마치고 면세점이 있는 보세구역으로 나오니, 오가는 사람이 적어 공항이 텅 빈 느낌이다. 마치 손님이 없는 쇼핑몰에서 있는 느낌이다. 인천공항 개항 후 이렇게 한적한 공항은 처음이다.

아침부터 서둘러 짐을 나섰기에 요기를 하면서 여행계획을 점검하려고 대한항공 라운지에 들렀다. 업그레이드를 받아 들어온 일등석 라운지에 이용객이

나 혼자뿐이라 쓸렁하다. 잠시 후 한 사람이 더 들어왔지만 준비된 많은 음식이 아까워 보인다.

공항에 와서 비행기를 기다리다 보니 이제 정말 세계일주를 떠난다는 실감이 든다.

### 샤를 드 골(Charles de Gaulle) 공항에서

세계일주 여행 첫날이다. 서울을 떠난 대한항공 비행기는 예정보다 40분 빠르게, 13시간 만인 오후 6시경 파리 샤를 드 골 공항에 도착했다. 설레는 기분으로 비행기를 내리자, 프랑스의 공기에서 신선한 맛을 느낀다. 아마 특유의 냄새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기분이 그렇게 느껴졌을 것이다.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은 저녁 무렵인데, 밖은 낮처럼 밝다. 파리의 위도가 북위 48도로 서울보다 낮은 길이가 길어 북유럽 같은 느낌이다.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서울을 떠났지만, 파리는 늦여름에서 초가을의 중간 어디쯤으로 느껴진다. 두 달 전쯤 6월의 파리는 이상고온과 폭서로 엄청 고생했다고 한다. 더위도 추위에 못지않게 여행에는 큰 부담이다. 다행스럽게도 여름 무더위가 일찍 지나가고 있나 보다.

### 파리 입국심사,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는 어디서 검사하나?

파리에 입국하는 여권검사대에는 많은 여행객들로 긴 줄이 서 있다. 내 차례까지 30~40분을 기다려서 여권을 내미니 '쾡' 입국도장이 찍힌다. 묻지도 따지는 것도 없다. 손에 꼭 쥐고 있던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를 보여달란 말이 없다. 어디에 접종증명을 보여줘야 하나 하며 두리번거리다 보니 이미 짐 찾는 곳이다. 이게 뭐지? 접종증명을 보여줄 필요가 없이 입국수속이 끝나 있었던 것이다. 왠지 속은 듯하면서도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며 입국장으로 나선다.

파리공항은 많은 이용객들로 분주했다. 서울을 떠나기 전 한산했던 인천공항과 달리, 파리공항은 코로나 이전처럼 붐비는 모습이다. 공항 여객터미널 안이

지만 프랑스인들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마스크를 쓴 사람이 드물다. 13시간 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강제하던 인천공항과 너무 다른 상황이라 조금은 어리둥절하다. 곧 알게 된 일이지만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나라들은 2022년 8월 1일부로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종료하고 방역조치를 해제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미 일상을 되찾은 상태라고 했다.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위생에 맡기는 자율방역이란단다.

코로나19 예방접종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의료시스템도 더 잘 갖추었다고 선전했던 한국은 아직 코로나 강제방역 중인데 어떻게 프랑스는 방역을 풀고 개인위생에 맡긴 것일까?? 코로나 방역에 대한 의문을 안고 시내 호텔로 이동하기 위해 터미널 밖으로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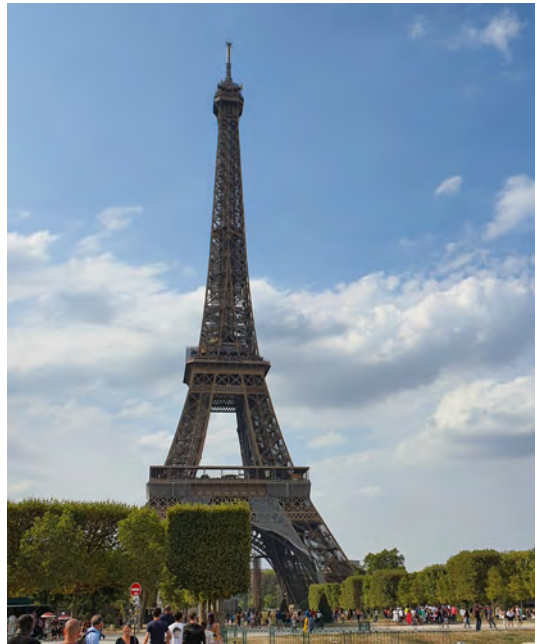
### 파리공항에서 에펠탑까지 택시비 58유로

전철을 이용할까 아니면 버스를 탈까, 선택을 고려하는데 벽면에 택시 탑승안내가 크게 적혀있다. 파리 시내 어디든 택시요금이 동일하다는 안내다. 바가지 쓸 일은 없었다. 샤를 드 골 공항에서 에펠탑 근처에 예약한 이비스 호텔까지 택시비는 58유로다. 버스나 전철을 이용하면 더 저렴하게 시내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가방을 끌며 이리저리 초행길을 찾아다니기란 진을 빼는 일이다. 여행기간 동안 가능한 한 버스, 전철 그리고 걸어서 다니겠다는 여행원칙을 세웠지만, 공항교통은 예외다. 짐을 핑계 삼아 택시를 이용하고자 자신을 위로하며 택시를 탔다.

공항도로를 달리는 택사에서 보는 노을과 하늘색이 아름답다. 저녁 7시를 지나고 있지만 아직 해가 남은 유럽의 하늘을 보니 '다른 나라에 왔구나.' 하는 현실감과 앞으로의 기대감에 피로를 잊는다.

### 왜 세계일주를 떠났나?

세계일주 기행! 처음부터 대단한 목표를 둔 여행은



아니었다. 단지 은퇴 즈음의 포래들이 두려워하는 체력과 건강에 대한 마음의 벽에 도전해서 이겨내고 싶었다. 자칫 방심하여 잃을 수 있는 자신감을 잡아두고 싶었다. 두려움과 망설임을 극복하고 열정과 의지가 있으면 힘들어 보이는 목표라 할지라도 완주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마음먹기에 따라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삶에 활력을 주고 싶었다.

지식을 쌓아야 과학적 판단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이런저런 책만 쌓아놓던 시간이 있었다. 개인이 얻는 지식의 양이란 얼마나 미소하던가? 지식을 쌓는다는 것이 편견의 벽을 높이는 시간인 아니었는지 생각해본다. 책이 아니라 길 위에서 다른 사람들이 축적한 지혜를 얻어보자고 세상을 걷기로 했다.

하나 더 목표가 있다면 어린 중학시절부터 꿈꾸었던 세계일주여행을 오늘에 와서 실천한다는 거다. 요즘은 누구나 마음먹으면 해외여행을 할 수 있지만, 장기간의 세계일주여행은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세계일주를 하겠다는 생각



을 인생의 로망으로 갖고 있다. 하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은 듯하다. 인생을 살다 보면 꿈을 실천에 옮기기에 현실의 벽이 높지 않던가.

## 여행의 3박자

### 시간

우선 장기간의 시간을 내는 것이 누구에게나 큰 장벽이다. 직장, 생업, 가정에서 나의 존재를 오랜 시간 비우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직장이나 생업을 한 달 이상 떠나기 어렵기 때문에 세계일주 여행은 '언젠가 때가 되면...' 하면서 뒤로 미루게 된다. 그러다 평생 이루지 못할 계획이 된다.

### 여행비용

큰맘 먹고 시간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은 장애요인이다. 여행기간에 드는 비용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여행하는 동안 수입은 포기해야 하므로 이중의 부담이 된다. 장기간의 여행을 계획한다면 비용계획을 세워 준비해야 한다.

여행을 떠나서 비용을 절약하며 다닐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현지인같이 살아 보는 것이다. 마음을 열고 다른 문화, 현지의 교통, 식사와 숙박에 적응한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 건강

장기간의 여행, 낯선 곳으로의 여행에서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다. 나이가 들면 건강은 더욱 문제가 된다. 코로나19 세상을 겪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위생에 대한 염려증이 커졌다. 세계일주를 한다고 하면 누구나 건강 문제에 대해 한가득 걱정부터 한다. 어떤 이들은 지병으로 챙겨야 할 약이 한 보따리라서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한다. 건강과 체력은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은 맞다. 다른 나라에

가서 건강을 잃는다면 더 이상 여행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일들을 따지다 보면 일상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다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리듯 세계일주의 꿈은 사그라들기 일쑤다.

## 혼자 떠나는 세계일주

막연하게 세계일주를 꿈꾸었던 중학생은 어느새 60대 중반이 되었다. 건강과 체력을 걱정하는 나이다. 그렇지만 꿈을 버리면 인생이 아쉬울 것 같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간직했던 로망을 봄날의 꿈처럼 날려 보내기에는 아깝지 않은가? 흐르는 시간에 미래의 인생을 얹혀산다면 무료한 생활이 될까 두렵다. 용기와 도전은 인생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내 앞에 놓인 인생을 아름답게 꾸려나갈 새로운 소망을 갖고 도전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일상을 중단하고 오래된 꿈을 실행하기로 했다.

혼자 떠나는 세계일주여행이다. 외로울지 모른다. 아니, 외로움은 사색을 위해 좋은 벗이 되기도 한다. 운이 좋으면 때때로 길 위에서 여행객이나 현지인을 만나 친구가 되고 길동무를 삼는다. 길동무는 내 마음이 열려 있고 스스럼없을 때 자연스럽게 다가온다고 믿는다.

막상 여행을 다니다보면 외로움 새가 없이 바쁘다. 계획된 시간은 바쁘게 다가오고 순식간에 멀어진다. 하루하루 여행계획을 세우고 길을 걷다 보면 시간이 짧다. 그렇게 꿈꾸어 왔던 123일의 여행이 시작되었다.



이규형 경영학박사  
조직경영연구소 대표  
기업조직경영 자문,  
융합경영학회 감사

# 맞춤형 혁신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성공을 돕는 튼튼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Consulting

비즈니스 솔루션 도출과 현장 적용을 위한 전문 컨설팅 및 상생협력 파트너십



## Solution

R&D를 통해 도출한 최적의 솔루션을 적용,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 Education

비즈니스 모델 실현을 위한 서비스 및 기업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 제공

## MatchBox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원천 데이터를  
> 실시간 시각화하여  
비즈니스 인사이트 제공



## Green Nest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에너지  
> 정보 분산처리 솔루션



### 스타트레일 매거진

스타트업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유익한 교육 콘텐츠를  
담고 있는 웹진



# “조직의 미래 비즈니스 성품이 좌우한다”

“말할 것도 없이 성품은  
모든 진정한 리더십의 기초이다.”

-John C. Maxwell -

“훌륭한 조직에는 훌륭한 사람과  
훌륭한 문화가 있다.”

-Ray Dalio, 브릿지워터 CEO-

“우리는 지성만으로는 불충분함을,  
지성에 성품을 더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육의 목표입니다.”

- Dr, Martin Luther King-

☎ ESG성품경영시스템 인증 및 교육 문의: 02-2242-2012



Good Character, Good Company  
한국성품경영협회

“한국성품경영협회는 성품경영과 관련되는 융·복합 연구와 활동, 학술지 발간 및 인증제도 운영을 통하여 사회 속 다양한 조직에서 친환경, 사회가치 실현, 투명한 지배구조의 ESG 경영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연구재단 기관 등록번호 8B4727 주소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55, 코로롱사이언스밸리 2차 B101-218  
카페 <https://cafe.naver.com/charactermanagement> 블로그 [https://blog.naver.com/character\\_management](https://blog.naver.com/character_management)  
홈페이지 <http://kaocm.or.kr/> 이메일 [character\\_management@naver.com](mailto:character_management@naver.com) 모바일 010-6839-4970